

꼬빌리시교회 한국어 주일예배

2026. 1. 11. 11:28- 첫 예배 26주년 기념주일

인도: 류광현 목사

설교: 류광현 목사

기도: 김동석 집사

봉헌: 예윤, 최은홀

경배와 찬양 - 찬양팀 인도(11:15부터)

예배의 초청 - 시편1:1-3 + 요4:24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아멘.

여는 기도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 아멘.

감사찬송 - 새1[통1] 만복의 근원 하나님

(통일 1)
송영
 Doxology
 T. Ken(1637-1711)

만복의 근원 하나님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시 100:1)

1
 OLD HUNDRETH: 8.8.8.8.
 Generan Psalter
 L. Bourgeois, 1551

보통으로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G Eb→D Fm→Em Db→C Eb7→D7 Bb7→A7

기도

교회공동기도

- 교빌리시에 한국어 예배공동체를 세우시고 지난 26년간 지키시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 작고 힘없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개인기도

대표기도: 김동석 집사

주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 아멘.

2024교회학교 수료식

유치부 수료: 정세아(2019.08.25생), 성이안(2019.09.07생), 주운유(2019.09.30생) / 초등부 수료: 전서진(2013.08.31생) / 중고등부 수료: 예윤(2007.11.17생)

2025교회봉사자 임명식

집사: 이인선, 장정임, 한수연, 문수진, 최소윤, 서규성, 성길동, 최다연, 박수진, 황인하, 정양숙, 배우리, 김동석, 정태훈, 주승민, 강주희, 배진희, 윤정애

교사: 민주형/장의현/류한별(유치), 장정임(초등-저), 배우리(초등-고), 주승민(중고등), 정연실(교회학교총괄) / 최정규(특별활동교사)

안내봉사자: 여경화 / **구제봉사자**(노숙인봉사총괄): 김영만 / **사서봉사자**(하늘꿈도서관): 여경화, 예다빈, 강예진 / **체육친교부장:** 최정규

예배봉사자: 한수연(예배반주), 황인하(예배반주), 박수진(예배반주) / **찬양대:** 황인하(찬양대장), 강희(찬양대지휘), 강예진, 박서린, 배우리, 한수연, 이인선, 류한별, 소유진, 우예슬, 최다연(이상 소프라노), 정연실, 최경원, 최소윤, 장의현(이상 알토), 강주희, 박상영(이상 테너), 김동석, 서진, 민주형(이상 베이스) / **찬양팀:** 주승민(찬양팀장/보컬리드), 보컬: 강주희(보컬리드), 서진, 장의현, 류한별 / **연주:** 강민수, 박영희, 최경원, 강희, 예윤, 서현 / **미디어관리팀:** 최정규(미디어관리팀장), 예윤(음향관리), 서현(음향관리), 최은홍(미디어관리)

어린이시간

교회소식

*2026년 공동체 표어(미가6:8): "동행2026 –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한 해"

*성도의 교제(요13:34):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마11:28):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 오늘 예배 후에 홀에서 꼬빌리시 한국어예배 26주년을 감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 지하에서 식탁교제가 이어지겠습니다.
2. 오늘 식탁교제 후에 찬양연습과 교사윌레회가 있겠습니다.
3. 다음주일(1.18)에도 꼬빌리시 야곱의 사다리 교회당에서 11시 28분에 한국어예배가 있습니다. 11시 15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4. 다음주일(1.18) 식탁교제 후에 대표집사회가 있겠습니다.
5.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오후 7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성경모임이 있겠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 한국청소년 입교교육이 있겠습니다.
6. 찬양대와 찬양팀 연습 안내: 찬양대는 예배당 뒷편에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연습시간을 갖고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지하에서 연습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찬양팀 연습은 같은 시간에 예배당 앞쪽에서 찬양대에 대한 배려 속에 이루어지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보다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매월 둘째 주일에는 오후 4시부터 헝가리어예배가 있으니 늦어도 오후 3시 30분까지는 뒷정리가 마쳐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7. 다음 대표기도: **정양숙**(1.18), **최소윤**, 배우리, 강주희, 예창열, 이인선, 장정임, 한수연, 문수진, 박수진, 서규성, 성길동, 최다연, 배진희, 김영만, 여경화, 김동석, 윤정애

8. 다음 헌금봉사: **최은준**, **노유나** / 서현, 노성우 / 서은, 예윤 / 전우진, 김소을 / 예윤, 최은홀

9. 금일 설거지봉사: 1.11-정연실, 문수진, 김영만 / 1.18-류광현, 장정임, 황인하 / 1.25-최소윤, 정양숙, 차혜숙, 강민수 / 2.1-연합예배 / 2.8-최다연, 정태훈, 서규성, 박영희 / 2.15-배우리, 여경화, 김주영, 강주희 / 2.22-이인선, 성길동, 김유라, Jan Sodomka

10. 금일 식사봉사: 1.11-다같이 / 1.18-뽕(교회준비) / 1.25-정연실, 최소윤, 박수진, 배우리 / 2.1-연합예배 / 2.8-이인선, 여경화, 문수진, 황인하 / 2.15-다같이 / 2.22-장정임, 정양숙, 최다연, 김동석

성경읽기

<미가 6:6-8>

6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말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8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나

설교 -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지난 송구영신예배 설교 본문으로 한번 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들 중에는 올해 예정돼 있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 목표와 바람일 수 있겠습니다. 어른들 중에는 올해 새롭게 시작한 사업이나 계획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와 바람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이끄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진정 복이 되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내게 있어도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내게 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적거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결국 그 모든 상황은 내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복을 진정 복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심

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 마음 속 빈자리가 결국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고, 따라서 그가 진정 복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함께 소망하며 노력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동행 2026",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순간으로 채워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주제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란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육십오 세에 아들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이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녹에 대해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11:5)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그것은 곧 믿음의 삶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녹만이 아니라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몸소 그분의 생애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8절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행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정의를 행하며'에서 행하다는 do, 무언가를 한다는 의미이고, 뒤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에서 행하다는 walk, 걷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뜻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이라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유다는 강대국 앗시리아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상황이었기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 위협은 더 심각하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눈에 그 외부의 위협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에 선지자는 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 외치면서, 이를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만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선지자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지를 느낍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의 그 아득한 거리를 느끼며 그는 백성들을 대신해 질문을 던집니다: 내

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일 년 된 송아지는 성전제사에서 드려질 수 있는 최고품질의 제물을 말합니다. 천천의 숫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란 성전제사에서 드려질 수 있는 최대치의 제물을 말합니다. 가장 좋은 걸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아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일은 당시 가나안 이교의 풍습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일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그 이교의 풍습을 따라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면 신의 노여움을 잠재우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 행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허물이 사해될 수 있을까? 혹은 내 몸의 열매, 내 몸의 수고와 희생을 통해 내 영혼의 죄가 씻겨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선지자는 8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일을 행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각자 옳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각자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엔 율법을 통해, 그리고 신약시대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옳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각기 제 자리를 갖게 하는 일. 이 세상에서는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 힘없는 사람들이 제 자리를 뺏기고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반영된 구약의 율법이 약자보호법의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서 걸어가신 길은 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그것을 행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고 눌린 자, 더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겨지며 배척받던 자들에게 나아가 그들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신 이유도,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도, 다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행하는 길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바라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기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헤세드는 관계에 있어 신실함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남녀가 결혼하며 했던 서약을 지키는 것,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그런 경우일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쌍방이 것처럼 약속한 바를 잘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쪽이 그 관계에 있어 신실하지 못하

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 세상에서 보통 벌어지는 일은 계약의 파기, 관계의 단절일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헤세드'가 내포하고 있는 또하나 중요한 의미가 나타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들이 그 언약을 잘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였고, 그들은 그러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스라엘은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은밀히 숭배했고 이웃을 대하는 데 있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들과 맺은 언약에 끝까지 신실하고자 하였고 오래 참으셨으며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이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이킬 때마다 용서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구원의 새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관계의 신실함에 기반한 자비롭고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NIV영어성경에서는 이 헤세드를 merc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성경에서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헤세드의 사랑이 낯설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십자가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눅6:36)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이 헤세드의 사랑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관계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신실하고 자비로우며 한결같은 사랑을 자유롭게(freely) 그리고 의지적으로(willingly) 행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사모할 수 있고 또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선한 것,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 마지막 셋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함께 걷기 위해서는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내 뜻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주시는 것이 나은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내 뜻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며 나아가는 것이 나은 길이었습니까? 후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높으신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을 따라 점점 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고양되지만, 전자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만물보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따라 끝없이 아래로 추락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을 중심에 두고 그걸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두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겸손하게'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뜻에 나 자신을 비추어보며, 그 뜻에 나를 순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그 앞에 언급된 두 가지 일, 즉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일과 동떨어져 행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는 가운데, 그리고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우리에게는 적어도 두 가지를 실천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

는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계속해서 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상식 선에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더 깊이 이해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매일의 삶은 그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품고 걸어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헤세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할 때에만 체험하고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며 나아간 자리에서 비로소 만나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어졌으나 깨닫지 못한 말씀이 그 말씀을 행하는 길에서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어떤 낯선 곳에 서게 될 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이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미리 계획되지 않은 길을 가는 모험과 같지만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혼자자 아니라 신실하신 동행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곳 꼬빌리시에서 첫 한국어예배가 드려진 지 26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인간적 편안함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나아온 이 교회의 여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의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며 성령에 의해 계속해서 새롭게 창조되며 하나님의 선교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뜻을 발견하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올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설교 후 기도 - 설교자

봉헌 - “내가 무엇을 가지고” / 헌금봉사: 예윤, 최은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원제 : 미가서 6장 6절 - 8절)

조의환

1. 내가 무엇을 가져 고 여호와 앞에 나아 가며
2. 내가 천천히 수양 과 번 제를 - 주께 드 릴까

높으 셴 하나님 께 경 배 할 - 까
내몸 의 열매로 써 주 께 바칠 까

사 람 아 주께 서 셴 한 것을 - 보 이 셴 나 니 -

여 호 와 께 서 네 - 게 구 하 시 는 것 은

공 의 를 행 하 고 인 자 를 사 랑 하 며

겸 손 히 - 네 하 나 님 과 함 께 행 하는 것이 라

Copyright © 조의환

봉헌/목회기도 - 인도자

영광찬송 -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원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Don Besig & Nancy Price

나영수 역

1. 여기에 -모인우리 주의 온 총방은자여 라
이 -뜻하신 일 헤아 리 기어엿더라 도

주께서 -이자리 에 함께 계 심을 아노 라
언제 나 -주뜻안 에 내가 있 음을 아노 라

언제 나 -주님만 을 찬양 하 며따라가리 니
사랑 의 -말씀들 이 나를 더 옥새롭게하 니

시험 을 -당할때 도 함께 계 심을 믿노 라
때로 는 -넘어져 도 최후 승 리를 믿노 라

이 믿음 더 옥굳 세 라 주가 지 켜 주 십 다

어둔 방 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하 여주 십 다 2. 주님

다 3. 여기에 -모인우리 사랑 받 는 주의자녀 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 해뎌 치 십 다 이 믿음

다 주의 뜻 이뤄 지는 날까 지 믿음 더 옥 굳 세 라 -

International Rights Secured.